

고전 영화의 영한 자막 번역 고찰 -영화<오만과 편견> DVD와 넷플릭스 자막 번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배유진* · 김순영**

Yujin Bae and Soonyoung Kim (2021). A Study of English-Korean Subtitles of a Classic Movie: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DVD and Netflix subtitles of the movie *Pride and Prejud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subtitle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time the movie was screened and the delivery platform. To this end, the study compared Netflix's subtitles and the DVD version of the movie "Pride and Prejudice" to se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the translations and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Specifically,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wo main criteria, focusing on scenes that depicted the themes and characteristics of classical works. The first criterion was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readability of subtitles,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subtitle translation. The second criterion was fidelity to the original text. The findings showed that DVD subtitles were faithfully translated while retaining the format and tone of the original. On the other hand, the Netflix translation used concise, short sentences and figurative expressions using a modern tone compared to the original text.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difference in the age group of the main viewers of DVD and Netflix, an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 of more than 10 years in time. It is important to improve readability with a simple and modern tone and to satisfy the needs of the audience depending on the screening platform, but caution is required in using the translation strategy as it may otherwise und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lassic film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전공 박사과정생(제1저자)

**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교신저자)

Keywords: classic movie, DVD, economical efficiency, fidelity, Netflix, readability, subtitle translation

주제어: 고전영화, DVD, 경제성, 충실성, 가독성, 넷플릭스, 자막번역

1. 서론

『오만과 편견』, 『제인 에어』 등의 고전 문학작품이 다수 영상화 된 것은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는 탄탄한 줄거리와 오랜 기간 동안 대중에게 읽히고 회자되어 흥행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실, 당시의 사회상과 인간상 등을 통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은 보관해야 할 유물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 ‘고전의 창조적 계승’으로서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권순궁·옥종석, 2018).

문학 작품이 지속적으로 재번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전 영화들 역시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영화 <오만과 편견>의 경우에도 1938년 처음 BBC드라마로 영상화 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영화 또는 드라마로 각색되어 제작된 바 있다¹⁾. 이때 영화의 최종 완성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자막 번역은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주제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비하여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극대화되므로 원작의 메시지 전달에 있어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문학작품의 재번역 과정에서 의미의 재해석이 일어나듯이 영화의 경우에도 재영상화와 자막번역 과정에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고전 영화의 경우 원작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에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DVD와 같은 전통적인 배급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독점적인 자막 번역이 이루어지던 때와 달리 개별 경험기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ver The Top, 이하 OTT) 플랫폼으로 상영 기반이 달라지는 경우를 비

1) <https://www.deseret.com/2016/2/5/20581914/a-history-of-pride-and-prejudice-on-tv-and-film/#laurence-olivier-as-mr-darcy-and-greer-garson-as-elizabeth-bennet-in-the-1940-version-of-pride-and-prejudice>

고해보면, 동일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자막번역의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수요층이 형성되고, 영화시장 또한 세계적인 규모로 방대해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그 선두에 있는 넷플릭스는 이미 가입자수 2억명을 돌파²⁾하였다. 이처럼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경우 사소한 오역 하나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불규칙한 자막의 품질로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OTT 서비스의 등장과 성장세는 영상번역가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지만 번역가에 대한 처우 개선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했기에 자막 번역의 품질은 상당히 불규칙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³⁾.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전영화의 DVD 버전 자막과 넷플릭스 자막을 비교 분석하여 영화의 상영 시기와 전달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자막번역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OTT 서비스 시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영화 자막의 실제 번역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DVD 버전 자막과 비교하여 차이점은 무엇인지,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무엇인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함의점을 논의해볼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영화 <오만과 편견>으로, 제인 오스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오만과 편견』은 1813년 출간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재번역본이 나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원전으로 한 영화의 DVD 및 넷플릭스 한글 자막을 다루게 될 것이며, 분석대상에 대한 설명은 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영화 상영 시기와 전달 플랫폼의 차이가 자막번역에 가져오는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 고찰해보며, 추후 더욱 다양한 장르의 자막비교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34400009>

3)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9>

2. 연구 배경

2.1. OTT 서비스 등장과 영화시장의 확대

인터넷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의 영역이 다양한 매체로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맞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그 선두에 있는 넷플릭스는 이미 가입자수 2억명을 돌파하였다. 신성경·박주연(2020)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국내에 진출한 2016년을 기점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로 유통채널을 확장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콘텐츠 이용환경을 구축하였고 단시간에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극장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국내 영화시장의 구조가 OTT의 성장과 코로나19 상황이 기폭제가 되어 변화⁴⁾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우선 예전처럼 굳이 극장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영이 끝나 아쉬웠던 영화를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시리즈물을 연속으로 시청할 수도 있는 만큼 선택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김예슬란·이세진(2021)에 따르면, 젊은 층과 고학력층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것에 더 능숙하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특히 업무로 인한 피로감이 높고 여가시간이 부족할 때 여가활동으로 외부활동보다는 실내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고 앞으로 언택트 문화가 발달할수록 그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례들만 보아도 앞으로 영화시장은 수익구조 다변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 더욱 세계적인 규모로 방대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영상번역이 지니는 의미와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조성은(2014)에 따르면, 영상 리터러시(audiovisual literacy)와 영상번역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다양한 주제와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되며 디자상번역학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처럼 이용자를 많

4)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

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경우 사소한 오역 하나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불규칙한 자막의 품질은 이용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오경한·노영희(2021)는 최근 마블영화에서 발견된 오역들이 매우 큰 이슈가 되었고 영화 코멘트란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용자들의 영어수준이 높아지고 시청한 영화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접근성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번역 시장 또한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상의 의미가 커진 만큼 영상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막 또한 내용 전달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이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2. 국내외 선행연구

자막은 다양한 미디어의 특징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통적인 영상 미디어인 영화와 TV에서 사용되는 자막은 전문적인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포맷의 미디어인 OTT 또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막 제작이 가능해지고 시청자의 자막 선택권도 확대되었다(신양순, 2019). 특히 OTT의 등장으로 글로벌한 영상 환경이 구축되고 다양한 언어 수요가 집중되면서, 소통에 필수적인 자막 번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와 연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DVD자막과 넷플릭스 자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영상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페더슨(Pedersen, 2018)에 따르면 자막 규범(norms)의 변화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영상의 제작, 배급, 상영 등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들 또한 달라지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의 시대, 민간방송 및 DVD시대를 거쳐 현재의 OTT서비스를 포함하는 VOD(video on demand) 시대⁵⁾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과 함께 영상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변화가 생기면서 그 중의 일부인 자막 부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페더슨은 특히 OTT서비스에서의 자막은 서비스의 급속 성장과 함께 갑자기 많은 언어

5) 페더슨(Pedersen, 2018)은 VOD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이해관계자를 넷플릭스로 지칭하고 있다.

로의 자막이 필요하게 되면서 최초에는 기존에 이미 성문화되어 있던 DVD 자막 규범을 차용했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정을 가해 규범이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홈페이지에 자체 자막 가이드라인⁶⁾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 “피드백 제공(Provide feedback on this style guide)” 버튼이 있어서 현지 언어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가이드라인이 수정되기도 하며 언어의 실제 사용 현황을 보여주는 현지화 작업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 자막 번역 관련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리코넨(Riikonen, 2020)은 핀란드어에 기준하여 넷플릭스 자막을 DVD 자막 번역과 비교했을 때 특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비속어 번역에서 찾았는데, 영상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비속어의 번역이 누락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넷플릭스 자막은 DVD 자막보다 비속어 사용이 빈번할 수 있고 전체적인 자막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새로운 영상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접근용이성이 가장 먼저 언급되지만, 넷플릭스 자막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세다 쿠스쿠 오즈부닥(Seda Kuscu-Ozbudak, 2021)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자막을 콘텐츠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품질이 낮은 번역이 제공된다면 추후 가입을 취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넷플릭스가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지금의 성공가도를 이어 가려면 양질의 번역을 일정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최수연(2019)이 영상 기술 자체의 발전이 자막 출력의 스타일 및 제작 방식을 바꾸었고, 시청자들의 경험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매체의 자막 적응도 빨라지고 있으며, 번역가의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최신 영상플랫폼에서의 자막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영어자막을 대상으로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식 자막번역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이주은(2020)에서는 넷플릭스 자막 번역가이드에서 자막의 가독성을 위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막은 최대 두 줄이며 줄바꾸기를 임의로 하지 않아야 하고 문장부호 사용법도 정해져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 자막 번역에 관한 연구는 기존 영상 번역의 일환으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6)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6001127-Korean-Timed-Text-Style-Guide>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기술과 플랫폼 환경 속에서 관객들을 만족시킬만한 자막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연구가 꾸준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소개 및 분석방법

영화 <오만과 편견>은 제인오스틴의 동명 소설 『오만과 편견』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다. 『오만과 편견』은 영국의 가장 위대한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데 이 작품의 전신인 『첫인상』이라는 소설이 1797년 완성되지만 탈고한 원고가 10년 이상 사장되어 있다가 1813년에 이르러 현재의 형태로 완전히 새로 써서 발표한 작품이다. 출간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기가 유지되고 있어서 그간 꾸준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속편이 쓰여지고 수차례 영화화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소설에 기반하여 2005년에 제작된 <오만과 편견>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 라이트(Joe Wright)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 매튜 맥퍼딘(Matthew Macfadyen) 주연의 2005년작은 국내에서는 1995년 BBC 드라마판과 함께 원작 소설을 영상화한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⁷⁾ 국내에서는 2006년 3월에 극장 개봉되었으며, DVD 출시는 같은 해 7월이다. 이후 동일한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2020년 9월에 상영되었으며,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서 접근 가능하다. 극장용 영화의 경우에는 자막의 입수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에 출시된 DVD와 2020년 9월 기준 넷플릭스에서 갈무리한 <오만과 편견>의 한글자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정리해보면, DVD와 넷플릭스 상영 영화는 동일한 영상이며, 시청 연령 제한 역시 ‘12세 이상’으로 동일하다. 다만, 상영 일자에 있어 각각 2006년과 2020년으로 14년이라는 시간 차가 있으며, DVD와 넷플릭스라는 상영 플랫폼의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영화 상영 플랫폼과 시기에 따

7)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616

라 자막 번역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자막(source text, 이하 ST로 표기한다), DVD 한글 자막(target text 1, 이하 TT1으로 표기한다), 넷플릭스 자막(target text 2, 이하 TT2로 표기한다)을 엑셀로 정리하고, 각 문장 별로 일대일 대조 분석하였다.

3.2. 분석 장면 및 기준

분석 사례를 추출한 기준은 고전작품의 주제와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면으로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여성상 및 결혼관이 드러나는 장면’과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런 장면일수록 자막의 변화 또한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또한 원작인 제인 오스틴 소설의 주요 주제이자 시대적 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기도 하므로, 이 장면들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나 인물 간의 대립으로 주요 에피소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구체적 장면 분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번째 기준은 기존 영상 자막 번역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주요 전략들 가운데 자막의 크기와 글자 수, 화면 재생 속도 등 제약 조건이 따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자주 언급된 부분인 자막의 경제성과 독자 가독성이다. 넷플릭스에서도 화면 재생시간, 공간의 제약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작품의 상영시간은 정해져 있고 접근용이성과 휴대성이 극대화되는 스마트폰의 경우만 보아도 화면의 크기는 오히려 작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자막을 읽는 속도, 자막을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전통적으로 영상 자막 번역의 기준이 되어온 경제성, 가독성 측면은 여전히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장민호(2004)는 나이다(Nida, 1964)의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 개념을 들어 출발하여 독자에게 주는 감흥과 도착어 독자가 갖는 감흥이 동일할 때 번역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대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의 경우 자막의 경제성과 독자 가독성이 함께 중요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막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생략 및 축약, 일반화 및 구체화 등의 번역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곧 언어의 간결성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도 간결성을 물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글자수

를 기준으로 자막의 경제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영화는 일반 텍스트에 비하여 오락성과 대중성이 더 강하며, 이는 곧 자막 번역에 있어서도 관객의 이해가능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짧은 순간에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길고 어려운 문장으로는 이해와 감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자막은 최대 두 줄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을 임의로 나누지 않도록 하고 말줄임표나 대시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여 자막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도착어 문화와 대중성을 고려한 일반 언어 사용이 잘 반영된다면 가독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번째 기준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다. DVD와 넷플릭스라는 두 매체의 특성과 시대 흐름이라는 외적 요인으로 고전 작품의 문학적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방향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번역 평가의 기본 요소인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영화 <오만과 편견>은 원작이 간직하고 있는 시대·문화적 배경과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어투와 문체가 두드러지는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자막번역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충실하게 전달되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원문에서의 충실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원문의 통사 구조를 가급적 해치지 않고 고전적 느낌을 유지하려 했는지, 상영 시기 및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어휘 및 표현의 선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4. 사례 분석 및 논의

앞서 기술한 바와 2005년에 제작된 영화 <오만과 편견>의 영어 자막(ST), 국내에서 2007년에 출시된 동일한 영화의 DVD 한글 자막(TT1), 그리고 2020년에 출시된 넷플릭스 자막(TT2)을 엑셀로 정리하여 일대일 대조 분석하였다.

아래 예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당시의 여성상 및 결혼관이 드러나는 장면들

예시 1)

ST (엘리자베스) I wonder who first discovered the power of poetry in driving away love? But if it is only a vague inclination, I'm convinced one poor sonnet will kill it stone dead.

(다아시) So what do you recommend to encourage affection?

(엘리자베스) Dancing. Even if one's partner is barely tolerable.

TT1 (엘리자베스) 시 한편에 사랑이 식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호감 정도였다면 유치한 시 한편에 식어버려요

(다아시) 사랑을 키우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엘리자베스) 춤이죠 파트너가 못 봐줄 정도만 아니면요

TT2 (엘리자베스) 시는 사랑에 독약이더군요

졸작시 한 편에 싸늘히 식기도 하죠

(다아시) 그럼 사랑의 묘약은 뭐죠?

(엘리자베스) 춤이죠 비록 파트너가 끔찍하다 해도!

예시 1은 무도회장에서 처음 만난 남녀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다.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엘리자베스의 성격 및 캐릭터 설정에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이다. DVD 번역인 TT1은 원문의 구조와 형식을 유지하면서 직역에 가깝게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차분한 어조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엘리자베스의 단정하면서도 당찬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최대한 원전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한 번역이라 판단된다. 그런가 하면 넷플릭스 번역인 TT2는 문장구조와 형식면에서 원문과는 달리 ‘사랑에 독약’, ‘졸작시’, ‘사랑의 묘약’ 등과 같은 관용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장의 길이를 줄여 언어의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TT1과 비교하였을 때,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문장 말미에 느낌표를 사용하는 등 어투 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다 단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엘리자베스의 감정을 강조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시 2)

ST: Mr. Bennet, the way you carry on, anyone would think our girls look forward to a grand inheritance. When you die, Mr. Bennet, which may in fact be very soon, our girls will be left without a roof over their head nor a penny to their name.

TT1: 당신의 태도는 마치 우리 애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것 같네요
당신이 죽으면, 머지 않은 일이겠지만 애들은 비를 피할 지붕도, 먹고 살 돈도 없게 돼요

TT2: 정말 태평이서 애들을 생각해봐요
당신은 곧 돌아가실 거고 그럼 애들은 빈털터리 돼요

예시 2에서는 TT1과 TT2의 문장 길이가 확연히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두드러진다. TT1에서는 ST의 ‘Mr. Bennet’이라는 호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가 원문과 동일한 구조와 형식에 맞추어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호칭의 경우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보완이 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TT2의 경우에는 원문의 문장구조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관용적인 표현과 현대적인 어투로 핵심의미만을 전달하고 있다. 당시 영국의 전통적인 상속 제도는 장자 상속 및 한정 상속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없는 딸들의 경우에는 결혼만이 재산과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결혼의 중요한 요소는 재산, 계급, 명성, 외모 같은 외적 조건들이었고, 여기서 DVD 번역인 TT1은 이런 사실적인 부분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다. 반면 넷플릭스 번역인 TT2는 딸들의 성공적인 혼사가 절실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베넷 부인의 급한 성미가 드러나는 어투와 ‘태평이다’, ‘빈털터리 된다’ 등의 극적인 비유 표현으로 감정의 전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예시 3)

ST (콜린스) So I must conclude that you simply seek to increase my love by suspense...according to the usual practice of elegant females.

(엘리자베스) I am not the sort of female to torment a respectable man.
Please understand me, I cannot accept you.

TT1 (콜린스) 저로서는 보통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의 사랑을 키우기 위해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자베스) 전 훌륭한 남자에게 고통을 주는 여자가 아닙니다
부디 이해해주세요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TT2 (콜린스) 거절하는 건 이유가 뻔하죠 날 몸 달게 만들려는 것

(엘리자베스) 전 그런 수 쓰는 여자가 아녜요
그냥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예시 3 역시 TT1과 TT2의 번역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격식체 사용, 자막의 경제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원작에서 제인 오스틴은 작품 속 인물과의 관계를 사실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형식을 갖춘 냉정하고 절제된 언어표현을 구사한다. 번역문의 경우, TT1에서는 원문의 구조와 형식을 가능한 충실하게 유지하고 격식을 갖춘 화법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TT2에서는 예를 들어 ‘몸 달게 만들려는’, ‘수 쓰는 여자’ 등의 비속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볍고 격식 없는 대화의 느낌을 준다. TT2에서의 이러한 접근은 문장의 길이가 짧아져 리듬감과 속도감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어투와 비속어 사용으로 지루한 느낌을 없애면서 작품에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효과를 높이는 오락성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인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투의 변화는 원문에서는 당차면서도 단정하게 그려졌던 엘리자베스의 성격이 다소 경박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아쉬움을 준다.

예시 4)

ST (제인) You know perfectly well I do not believe marriage should be driven by a lot of money.

(엘리자베스) Only the deepest love will persuade me into matrimony,
which is why I will end up an old maid.

TT1 (제인) 재산이 결혼의 조건이 되어서 안돼
(엘리자베스) 진정한 사랑 없인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난 노처녀가 될 거야

TT2 (제인) 돈이 결혼의 전부는 아냐
(엘리자베스) 깊은 사랑 없인 나도 결혼 안 해

예시 4는 엘리자베스가 언니 제인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문장의 길이 및 내용면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고자 한 TT1과는 달리 TT2에서는 ‘which is why I will end up an old maid (그래서 난 노처녀가 될 거야)’ 부분이 생략되었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도 전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래서 결국은 노처녀가 되고 말 것’이라 표현한 엘리자베스의 위트 있는 성격과 말투는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준다. 특히 고전영화의 번역은 자막의 경제성과 독자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원문어의 충실성을 기반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잘 표현하고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시 5)

ST: Even my piano stool belongs to Mr. Collins.
Because the estate passes directly to him and not to us poor females.

TT1: 심지어 내 피아노 의자도 그 사람 것이야
재산은 여자들에게 상속되지 않고 전부 남자에게로만 가니까

TT2: 우리 집 모든 걸 그가 상속받는데
딸들은 땅을 못 물려받잖아

예시 5는 엘리자베스가 친한 친구 샬롯에게 집안의 상속자인 콜린즈에 대해

처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샬롯은 나중에 콜린스와 결혼하며 엘리자베스와는 달리 세속적인 이해를 앞세운 결혼관을 지닌 인물로 대변된다. TT1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내 피아노 의자’ 라고 표현한 반면 TT2는 ‘우리 집 모든 걸’로 보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상위어로 표현하고 있다. 장민호(2004)에 따르면 일반개념화(chunking up)하는 상위어 번역 전략도 언어 경제를 달성하는 한 방법으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기 보다는 일반적인 개념의 어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수가 줄고 자막이 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표현의 글자 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TT1의 ‘심지어 내 피아노 의자도’와 같이 구체적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해주는 것이 더 나았을 법하다. 바로 다음의 ‘to us poor females’를 TT1에서는 ‘여자들에게’로 번역한 반면, TT2에서는 대화의 주체인 ‘딸들은’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의미의 전달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TT1이 TT2에 비하여 원문의 구조와 표현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시 6)

ST: Mr. Collins, I am perfectly serious.

You could not make me happy and I'm convinced I'm the last woman in the world who could make you happy.

TT1: 콜린즈 씨, 진심이에요

당신은 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요

TT2: 저, 지금 진담이에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예시 6은 엘리자베스가 콜린즈의 청혼에 거절의사를 밝히는 부분으로, 엘리자베스는 ‘Mr. Collins’라 칭하며 집안의 상속자인 상대를 최대한 공손하게 예우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해 청혼을 거절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이미지를 통해 이미 엘리자베스와 콜린즈 간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호칭의 사용은 상대를 지칭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대화 전체

의 분위기를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이끌어가려는 엘리자베스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므로 중요한 부분이다. TT1에서는 원문의 형식과 구조를 유지하여 ‘콜린즈 씨, 진심이에요’라 표현하여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그러나 TT2에서는 이러한 호칭 부분은 사라지고, ‘저, 지금 진담이에요’에서처럼 엘리자베스가 스스로를 ‘저’로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두번째 행, ‘You could not make me happy and I’m convinced I’m the last woman in the world who could make you happy.’을 보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또한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로 명확히 밝히고 있다. TT1에서는 이러한 원문의 형식과 구조를 유지하면서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여 ‘당신은 절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구요’ 처럼 표현하였으나 TT2에서는 간결한 문장으로 가독성은 높아졌을 수 있으나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아쉬움을 준다. 이처럼 짧고 단순화된 표현이 가독성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투, 사용하는 어휘, 표현 방식에 의해 전달되는 캐릭터의 성격묘사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하겠다.

4.2.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들

다음에서는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들을 위주로 번역 예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예시 7)

ST: I've often observed to Lady Catherine that her daughter seemed born to be a duchess, for she has all the superior graces of elevated rank.

TT1: 제가 가끔 캐서린 부인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따님은 공작부인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귀족으로서의 품위가 그 누구보다 월등하시니까요.

TT2: 전 부인에게 늘 말하죠

따님의 타고난 인품이 너무 고결해서 공작부인감이라고.

예시 7은 콜린즈가 엘리자베스 가족과 처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후견인인 캐서린 부인을 칭송하며 위화감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Lady Catherine’, ‘born to be a duchess’, ‘has all the superior graces of elevated rank’ 등과 같은 표현들이 당시의 계급사회를 드러내는 동시에 캐서린 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애쓰고 노력하는 콜린즈의 태도와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TT1은 이를 그대로 살려 ‘캐서린 부인’, ‘공작부인이 되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귀족으로서의 품위가 월등하시니까요’와 같이 번역해 원문의 의미와 더불어 캐서린 부인에게 아첨하고 싶어하는 콜린즈의 태도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TT2는 TT1에 비하여 비격식체의 대화투를 사용하여 격식을 갖추하고자 하는 콜린즈의 어투나 태도를 충실히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작부인감’이라는 표현에 쓰인 의존명사 ‘-감’은 “어떤 일을 할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 또는 그런 사람⁸⁾”의 의미로 규범표기는 ‘-감’이며, ‘-감’으로도 사용된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이로부터 환심을 사고자 하는 콜린즈의 태도와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비격식체 대화투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시 8)

ST: From the first moment I met you, your arrogance and conceit, your selfish disdain for the feelings of others made me realize that you were the last man in the world I could ever be prevailed upon to marry.

TT1: 당신의 도도함과 자만, 남을 멸시하는 이기심을 보고
당신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TT2: 당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에 신물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과 결혼 안 해요

예시 8은 마침내 사랑임을 깨달은 다아시가 비를 맞으며 엘리자베스에게 고백하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한 편견이 극에 달하면서 두 사람의 격정적인 감정이 충돌하는 장면이다. TT1에서는 원문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감정

8)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418812&supid=kku010159058> 참조

을 절제한 채 담담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엘리자베스의 어투를 통해 고전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TT2에서는 ‘신물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처럼 비유표현을 사용하여 짧고 강렬하게 감정의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오락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넷플릭스 자막 번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의 예시들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쉽게 읽힌다는 장점은 있으나 고전적 대화체의 느낌은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설적인 감정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당차지만 격식을 잃지 않는 엘리자베스의 캐릭터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시 9)

ST: I have fought against my better judgment, my family's expectation, the inferiority of your birth, my rank and circumstance, all these things, and I'm willing to put them aside and ask you to end my agony.

TT1: 난 나의 판단과 가족의 기대, 당신 출신의 열악함과 나의 위치 때문에 갈등했소. 이제 다 제쳐놓고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소

TT2: 신분과 집안 체면 따질分別력도 잃었소
이 고통을 치유해줘요

예시 9는 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신분의 차이라는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전통적인 규범과 개인의 선택 안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귀족 계급의 다아시가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인물들의 의지를 통해 전통의 규범과는 무관한 새로운 규범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모습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묘사했던 제인 오스틴의 화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TT1은 원문의 구조와 형식을 지키며 격식체로 번역하여 냉정하고 절제된 표현을 구사하는 제인 오스틴의 스타일을 잘 살린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TT2에서는 ‘分別력도 잃었소’, ‘치유해줘요’ 등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 단순화된 문장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냉철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다아시의 캐릭터가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인 감정표현은

영화 전반에 걸쳐 구축되어온 다이시의 캐릭터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시 10)

ST (캐서린 부인) Heaven and Earth, are the shades of Pemberley to be thus polluted?

(엘리자베스) You have insulted me in every possible way and can now have nothing further to say. I must ask you to leave immediately.

TT1 (캐서린 부인) 펨벌리 집안이 이토록 실추되다니!

(엘리자베스) 부인께선 절 충분히 모욕하셨습니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당장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TT2 (캐서린 부인) 그런 주제에 우리 가문을 넘뵈?

(엘리자베스) 그만큼 모욕 줬으면 만족하실 테니 당장 나가주세요

예시 10은 남자주인공 다이시의 이모인 캐서린 부인과 엘리자베스의 대립 장면으로, 원문에서는 ‘Pemberley’를 직접 언급하여 캐서린 부인이 대단한 집안의 출신임을 은연중에 나타낸다. TT1에서는 이를 ‘펨펠리 집안’으로 음차번역하여 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고, 문장의 형식 역시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느낌표를 사용하여 탄식하는 듯한 캐서린 부인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TT2에서는 이를 ‘그런 주제에 우리 가문을 넘뵈?’에서처럼 일반화하여 번역하였으며, 물음표로 끝맺음을 함으로써 도발적인 느낌을 준다. 이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답변을 보면, TT1에서는 원문의 두 문장을 세 문장으로 나누어 감정의 절제와 단호함을 표현한 반면, TT2에서는 이를 한 문장으로 축약하여 문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한 번의 호흡으로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시 9에서 다이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작의 캐릭터와는 거리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의 냉철한 캐릭터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제인 오스틴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오만과 편견>의 DVD와 OTT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넷플릭스 자막 번역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 대상은 제인 오스틴 소설의 주요 주제이자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는 두 가지 장면, 즉 ‘당시의 여성상 및 결혼관이 드러나는 장면’과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장면’ 등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인물간의 대립을 볼 수 있는 주요 대화들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영상번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 논의된 자막의 경제성과 독자 가독성, 그리고 원문어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하여 DVD와 넷플릭스 자막을 비교해본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막의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DVD 번역인 TT1은 전반적으로 원문의 문장 구조와 형식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의 길이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넷플릭스 번역인 TT2는 원문의 문장 구조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략 또는 비유어나 관용어 등을 활용한 짧은 문장의 사용을 주로 하여 자막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독성 측면에서 보면, TT1은 원문에 충실한 형식과 어투의 사용으로 고전의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으며, 가독성 보다는 캐릭터의 일관성 유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T2의 경우는 현대적인 어투와 비유어, 관용어 등이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대가 젊은 주시청자들을 위한 가독성을 염두에 둔 번역전략이라 판단된다.

셋째, 원문어의 충실성 측면에서 보면, TT1은 문장 구조나 형식, 어투의 표현과 의미전달에 있어 고전의 느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징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T2의 경우는 원문과 달리 단순하고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현대적인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오락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영상임에도 DVD와 넷플릭스 자막 사이에는 번역 상에서 차이점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DVD와 넷플릭스라는 두 플랫폼의 근본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DVD는 번역가 선정에서부터 번역 작업의 완성 및 수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모든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진행되며 동시

출시 등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 또한 주요 사용자 연령대 역시 자막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류가 된 넷플릭스의 경우 주시청 층인 젊은층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두 버전의 출시 시점 간에 10년이 넘는 시간차가 있다는 점 또한 자막번역에서의 차이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작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재번역 되는 것처럼 영화의 경우에도 새로이 각색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영상에 재번역 된 자막을 입혀 다른 매체를 통해 재상영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의 재해석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고전 영화의 경우에는 원작의 출간 시기와 최신작의 상영 시기 간에 시대적 간극이 극대화 되므로 원작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에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영 플랫폼에 따라서도 자막번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자막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하고, 상영 플랫폼의 성격 및 주시청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번역 전략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원작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기대에서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순근·옥종석. (2018). 「고전소설과 콘텐츠, 그 제작 양상과 개발의 전망: 영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5-46.
- 김재원. (2011). 「영한 영상번역에서의 경제성과 가독성 연구」 『영어영문학』 16(2): 75-100.
- 김예솔란·이세진. (2021). 「OTT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28: 35-68.
- 김효정. (2011). 「고전소설의 영상 매체로의 전환 유형과 사례」 『고전문학과 교육』 21: 255-280.
- 박경리. (2013). 「미국 드라마 팬자막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번역학연구』 14(5): 117-141.
- 박윤철. (2008). 「영화 자막 번역의 접근법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18: 111-135.
- 박윤철. (2012). 「자막번역과 그 경계 및 텍스트: 번역가의 개입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0(3): 93-116.
- 박윤철. (2013). 「영한 영화자막에 나타난 은유번역에 관한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1(1): 189-212.
- 신선경·박주연. (2020).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 이용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3): 53-94.
- 신소나. (2021). 「『오만과 편견』 영한 번역서 간 There 존재구문 양상차이와 구문의 교육 제언」 『영미문학교육』 25(1): 107-124.
- 신양순. (2019). 시대 변화에 따른 자막 발전 과정 연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8). 「OTT 시장」 보고서.
- 오경한·노경희. (2021). 「Netflix와 Youtube 플랫폼 내의 영화 자막오역 분석을 통한 영상번역 실태와 개선점: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3): 25-35.
- 이주은. (2020). 「문장구역의 전향적 전환법을 적용한 자막 번역」 『통번역학연구』 24(2): 139-158.
- 이지민. (2015). 「팬자막과 전통 영상번역은 과연 다른가?: 다중기호성을 반영한 영상번역 정의와 자막 형태, 자수 제한, 이국화 전략 탐구」 『번역학연구』 16(2): 165-186.
- 장민호. (2004). 「번역과 언어의 경제: 영화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번역』 6(2): 97-125.
- 정인희. (2006). 「영한 영상번역 전략 연구」 『번역학연구』 7(2): 207-233.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최수연. (2019). 「자막번역 현장의 변화: 공간의 제약을 어긴 자막의 수용 사례 분석」 『인문사회21』 10(6): 1501-1516.
- 최혜선·김승인. (2020). 「국내외 OTT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425-431.
- B. Hatim & I. Mason. (1997). Politeness in Screen Translating. In Venuti(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430-446.
- Diaz Cintas, J. & A.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Kinderhook: St. Jerome.
- Gottlieb, H. (1998). Subtitling. In M. Baker(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44-248.
- Luis Pérez-González.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New York: Routledge.
- Nida, Eugene A. (2000).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In Venuti(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Pedersen, J. (2018). From old tricks to Netflix: How local are interlingual subtitling norms for streamed television? *Journal of Audiovisual Translation* 1(1): 81-100.
- Sanna-Maria Riikonen. (2020). “Wordplay five!”: Comparing the Translation of Wordplay in the Finnish Subtitles of *How I Met Your Mother* on Netflix and DV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Vaasa.
- Seda Kuscu-Ozbadak. (2021). The role of subtitling on Netflix: an audience study. *Perspectives*, DOI:10.1080/0907676X.2020.1854794.
- Snell-Hornby, M. (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John Benjamins.
- Sperber, Dan. & Wilson Deirdre.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asil Blackwell.

[인터넷 자료]

- 구정모 (2021). 폭풍 성장 넷플릭스…전세계 가입자 지난해 2억명 돌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34400009\(2021.9.23.검색\)](https://www.yna.co.kr/view/AKR20210120034400009(2021.9.23.검색)). 넷플릭스 홈페이지 자막 가이드.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5758617-Timed-Text-Style-Guide-General-Requirements>, [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6001127-Korean-Timed-Text-Style-Guide\(2021.9.23.검색\)](https://partnerhelp.netflixstudios.com/hc/en-us/articles/216001127-Korean-Timed-Text-Style-Guide(2021.9.23.검색)).
- 동아일보. (2020). 코로나가 바꾼 영화 산업 지형도…넷플릭스 VS OTT 경쟁 본격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21.9.25.검색\)](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1212/104409885/1(2021.9.25.검색)).
- 씨네21. (2006).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616\(2021.9.28.검색\)](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7616(2021.9.28.검색)).
- 윤종호. (2020). 넷플릭스, 잇단 자막 논란 “넌 잘나가나?”. 아이즈(ize).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9\(2021.9.25.검색\)](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9(2021.9.25.검색)).
- Deseret News. (2016). A history of ‘Pride and Prejudice’ on TV and film. [https://www.deseret.com/2016/2/5/20581914/a-history-of-pride-and-prejudice-on-tv-and-film#laurence-olivier-as-mr-darcy-and-greer-garson-as-elizabeth-bennet-in-the-1940-version-of-pride-and-prejudice\(2021.9.28.검색\)](https://www.deseret.com/2016/2/5/20581914/a-history-of-pride-and-prejudice-on-tv-and-film#laurence-olivier-as-mr-darcy-and-greer-garson-as-elizabeth-bennet-in-the-1940-version-of-pride-and-prejudice(2021.9.28.검색)).

[분석 텍스트]

- Pride & Prejudice*. DVD. 2006년 7월 제작.
오만과 편견. 넷플릭스. 2020년 9월 출시.

This paper was received on 19 November 2021; revised on 30 November 2021;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1.

Author's email address

yujinbae0601@gmail.com

imksy927@daum.net

About the authors

Yujin Bae (first author) is a doctoral student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Seoul.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Soonyoung Kim (corresponding author)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teaching, and audiovisual translation.